

---

## 2019년 제1차 정보화위원회 회의록

---

회의 일 시	2019. 4. 3.(수) 16:00~17:30
회의 장소	광고 경제과학진흥원 비전실(1층)
회의 주제	2019년 제1차 정보화위원회
참석 위원	000(위원장),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경기도청

# 속 기 록

.....  
【 개 회 16:00 】

## □ 위원장 000

-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9년 제1차 경기도 정보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 의사봉 3타 >

-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화위원회 간사이신 정보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금일 회의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 간사[정보기획담당관 000]

-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담당관 000입니다. 금일 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3페이지에 있듯이 보고안건 1건과 자문안건 1건 해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안건은 보고안건으로 경기도 및 시군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정보화사업을 취합해서 경기도 전체에 대한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 보고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취합해서 예산규모와 주요 시행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요.
- 그다음에 두 번째 안건은 자문안건으로 정보화 시행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서 경기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4건에 대해서 자문안건으로 선정했습니다. 자문안건은 첫 번째가 디지털 경기도정 추진이고요. 두 번째가 정류장 주변도로 미세먼지 실시간 분석 및 빅데이터 기반의 대응시스템 구축, 세 번째는 신청사 이전 관련 통합전산센터 구축 및 망분리 추진,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이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자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위원회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위원장 000

- 정보기획담당관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안건 2건 중에서 안건번호 1번 2019년 경기도 정보화 시행계획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의사봉 3타 >

- 정보화전략팀장님께서 2019년 경기도 정보화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안 : 2019년 경기도 정보화 시행계획

【 16:09 】

### □ 사회자(정보화전략팀장 000)

- 정보전략팀장 000입니다. 자료 7쪽 보고안건 1호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2019년 경기도 정보화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는 경기도 정보화 조례에 의거 도가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정보화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먼저 금년도에는 정보화사업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금년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정책관 소관 정보화부서 현황입니다. 정보화정책관은 3담당관에 13개 팀으로 있으며 예산현황은 회의 자료로 같음하겠습니다.
- 자료 8쪽 2018년도 정보화사업 추진성과입니다. 2018년도에는 200개 사업에 850억 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도전, 다양한 융합,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2019년도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은 혁신, 공정, 복지 3대 가치와 디지털 행정혁신 생태계 조성, 오픈플랫폼 및 디지털리더십 강화, 데이터 민주화 등 6대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디지털로 만든 공정하고 새로운 경기 구현을 위해 도와 공공기관이 227개 사업에 730억 원을 투입하여 정보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정보화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위원장 000

- 정보화전략팀장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압축된 내용으로 보고해 주셨고요. 이것은 저희가 2018년 12월 18일 날 회의할 때 이 사업에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갈음으로 하고 이런 비전계획 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요 전략들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지 그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자세한 질의와 자문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간략하게 이렇게 해서 2019년 경기도 정보화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 의사봉 3타 >

- 지금부터 본격적인 자문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해서요, 다음은 보고안건 중에서 안건번호 2번 2019년 경기도 정보화 주요사업 보고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 의사봉 3타 >

- 주요사업 1번으로 해서 정보화전략팀장님께서 첫 번째 사업인 디지털 경기도정 추진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이후에 자문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제2안 : 2019년 경기도 정보화 주요사업 추진방안 자문

【 16:13 】

## □ 사회자(정보화전략팀장 000)

- 정보화전략팀장 000입니다. 자료 13쪽 보고안건 2호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2019년 디지털 경기도정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경기도정 추진계획은 디지털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설계부터 데이터 기반으로 구축하여 보고서 형식으로 소멸된 자료와 산재된 데이터의 체계적인 활용방안을 마련,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행정혁신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도정 전반에 산재된 각종 자료를 데이터의

관점에서 행정을 재정의하고 행정스텝 등의 감축을 통해 도정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디지털 경기도정 정보화 전략계획을 통해 마련된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경기도정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위원장 000

- 정보화전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략하게 발표를 해주신 디지털 경기도정 추진에 관련해서 자문 있으시거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역할이 자문을 해드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주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000 위원

- 디지털 기반의 행정이라는 게 경기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뭘 떼냐 그러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일 텐데, 그러니까 이 경기도의 행정이라는 게 대부분은 성격이 다른 도나 광역시나 이런 데랑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러면 기본적인 프레임, 틀은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따로 개발하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따로 하는 건가요?

#### □ 사회자(정보화전략팀장 000)

- 현재 시도의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정보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동향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하고 충돌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관리하고 경기도에 한정되어 있는 행정혁신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를 찾아서 연계하거나 공통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 □ 000 위원

- 현재 디지털 경기도정의 가장 큰 주요 목표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전부 다 구축을 하시겠다는 방향으로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

는 일단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방안이라든가 또는 31개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지만 경기도에서 구축된 데이터와 함께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라는 것은 구축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품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사회자(정보화전략팀장 000)

-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정형화된 데이터로 보고서 형태나 일반 파일의 문서 형태로 이루어지는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형화되는 품으로 DB 구축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공통기관이나 타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시스템 자료들은 데이터셋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연계가 가능한 자료인지 아닌지, 연계했을 때 어떤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 000 위원

-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배경 중에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전자정부를 넘어서는 디지털 거버먼트, 그게 저희가 하나의 자극을 받은 겁니다. 실제로 전자정부라고 하면 과거에 아날로그 시대에 우리가 했던 문서행위의 업무프로세스를 이걸 그대로 전산화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결재 칸이 있고 그걸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정도인데 이러다 보니까 벌써 세월이 꽤 많이 흘렀고 지금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하자는 그런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만들어진 많은 행정데이터들이 데이터가 아니라 보고서 형태로 쌓여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그동안 채용공고가 굉장히 많이 나가있는데 이 채용공고가 다 게시판 형태의 아래한글이나 PDF 게시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채용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로 분석해 보자. 할 수가 없어요. 다 문서를 보고 일일이 숫자를 입력해서 구축해야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채용 같은 것뿐만 아니라 기타 사업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축적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어쨌든 정부도 전자정부를 넘어서서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하기 위한 디지털 거버먼트를 준비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분

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지만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입력 시스템을 만들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표준화부터 시작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바꿔야 되는 문제, 또 그 위로 올라가면 문화를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각 데이터에 대한 정합적인 문제라든지, 과거 데이터에 대한 정책에 관한 문제라든지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올해 일단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하는 그 작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큰 틀에서의 데이터 기반 행정의 방향성을 정하고 이걸 위한 로드맵과 저희가 주로 거래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올해 이런 예산을 세우고 내년에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본예산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위원장 000

-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정형화, 표준화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필요한데 자칫 표준화는 사고의 틀이나 어떤 행위의 틀의 제한, 그 표준화 때문에, 제한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 데이터베이스는 비정형화된 데이터들도 저장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가고 있어서 표준화가 중요하나 그로 인해서 뭔가 다음에 사업을 새로 만든다든지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확장성이 깨지는 것에 대한 주의는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의 데이터들은 앞으로의 업무를 개선하면 거기에서 생성되고 축적이 될 건데 그럼 과거의 데이터들도 변환하는 프로세스를 하실 건가요?

## □ 000 위원

- 사실 이게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 앞으로 새로 생기는 것만 우선해야 될지, 과거의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굉장히 많죠, 업무량이. 그다음에 모든 행정업무나 대민서비스 업무까지 다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서 실증적이고 핵심적인 데이터부터 우선 입력해서 그걸 가지고 차근차근 합산해 나가든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ISP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자 이 차원입니다.

## □ 000 위원

- 데이터라는 건 실질적으로 구축도 중요하지만 우리 담당관님 계시지만 이게 어디에 활용이 되고 또 분석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정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어떤 틀에 맞춰서 나가는 협의적인 형태도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공공 데이터라든가 그다음 지자체 데이터하고 연계하려면 그 연계방안도 함께 고려해서 정책적인 방향 또 표준화 방향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000

- 예, 000 위원님.

□ 000 위원

- 도시의 데이터를 기반해 행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두 가지로 크게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백오피스 서비스, 프론트오피스 서비스가 있고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대민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하더라도 백오피스 서비스에 대한 부분, 행정에 필요한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첫 번째는 메타를 먼저 행정의 백오피스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자료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먼저 하고 다음에 두 번째 세컨드로 프론트오피스 서비스에 대민서비스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체계화를 시킬 때는 도시에는 각각의 행정 DB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관리 아니면 교통관리 환경관리. 그래서 각각의 모듈별로 모듈화 시켜서 체계화시키는 부분으로,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먼저 처음에는 체계화 방향성을 가지고 가더라도 3년이잖아요. 3년짜리이기 때문에 1차년도는 전체 프레임으로 가겠지만 성과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로 하는 것보다는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000

- 제가 좀 약간 엉뚱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각 시별로는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키워드로 해서 시티 안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스페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스마트시티 관련된 선진된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도는, 그러니까 시는 스마트시티해서 수원도 스마트시티라는 걸 굉장히 키워드로 내



세워서 시의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결국 스마트시티도 데이터 기반으로 센서를 통해 데이터 수집하고 그걸 가지고 결정을 내려서 액션을 해 가지고 시를 굉장히 인텔리전트(intelligent)하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는 물론 그 위에 존재하는 거긴 한데 그럼 스마트시티가 아니라 스마트도가 되어야 되나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당장의 업무프로세스가 아니라 그다음 단계 수준의 서비스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스마트시티의 확장된 버전, 도로 확장된 버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까지도 함께 가시면 그러면 3년 뒤에 사업이 됐을 때 선진화된 서비스, 과거의 것에 매여 있지 않은 선진화된 서비스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무리한 요구인 것 같긴 한데 그런 고려가 함께 들어가시면 선행으로서의 위치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000 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ISP가 들어가는데 제가 자료관 사업들 여러 번 해봤는데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 품질이거든요. 해보면 못 쓰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그걸 잘해 가지고 품질 확보방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합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활용을 당연히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활용을 생각한 포매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 그다음에 2단계로 들어가서는 우리가 데이터 기반전략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데이터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데이터베이스는 빅데이터로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 전략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전략이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의 스토리지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 가지고 내년 예산 들어갈 적에는 그것까지 같이 고려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위원장 000

- 감사합니다. 혹시 더...

#### □ 000 위원

- 다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 같기는 한데 데이터를 기존에 있던 것

을 무조건 쌓아놓는 그게 디지털화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최종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데이터는 플로우나 프로세스랑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플로우와 프로세스가 바뀌면 데이터 형태나 양이나 질이나 이런 게 모조리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업무프로세스하고 플로우에 대한 재조명, 재검토하고 재설계가 필요, 그게 먼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 □ 위원장 000

- 의견 더 없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주셔서 제가 취합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팀장님, 잘 적으셨죠? 잘 기록하셨죠?

#### □ 사회자[정보화전략팀장 000]

- 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 □ 위원장 000

-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거나 자문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디지털 경기도정 추진에 대한 자문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 그다음으로 가서 미래정보팀장님께서 두 번째 사업인 정류장 주변도로 미세먼지 실시간 분석 및 빅데이터 기반 대응시스템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 000[미래정보팀장]

-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담당관실 미래정보팀장 000입니다. 회의 자료 15~16쪽이 되겠습니다. 정류장 주변도로 미세먼지 실시간 분석 및 빅데이터 기반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에 공모과제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5,000만 원으로 국비 12억 원, 경기도와 성남시, 남양주시가 각각 1억5,000만 원씩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되는 등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서비스가 알람에 비중을 두었다면 본 사업은 센서데이터 기반의 즉각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투입

및 빅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도내 미세먼지 배출원 중 도로재비산먼지가 14.8%로 전체 배출원 중 2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31개 시군 도로 청소차를 18년 말 331대에서 19년부터 2022년까지 84대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도로 청소차를 확충하는 것과 더불어 본 사업은 도로재비산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저감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 버스정류장에 IoT 기반 미세먼지 간이측정센서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측정 자료에 기반한 최적의 운행경로를 선정하여 청소차를 운행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청소차 운행기록 및 시스템 관제를 실시하여 측정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청소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세먼지와 기후, 교통량, 풍향·풍속, 온·습도 등 인자와의 관계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정책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 도로재비산먼지 관리시스템 등 유사한 시스템들과 연계하여 보다 포괄적인 미세먼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발주 전으로 정보화진흥원의 과제조정위원회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된 후 사업발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위원장 000

- 미래정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해 주신 정류장 주변도로 미세먼지 실시간 분석 및 빅데이터 기반 대응시스템 관련해서 자문의견 혹은 질의가 있으시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000 위원

- 도로 청소차가 지나가면 미세먼지가 확 줄어드는 건가요? 몰라서... 14.8%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 □ 000[미래정보팀장]

- 전체 다는 없어지지 않겠죠. 기본적인 먼지의 잔량은 남아있을 텐데요. 지금 차들도 분진흡입차나 물청소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미세먼지가 물에 약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 분진흡입차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하게 되

면 당연히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체크를 아직 못했지만 저감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 부위원장 000

- 수원대 000입니다. IoT 분석해 가지고 먼지를 제거하는데 효과를 본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것은 청소대상이 지금 길에 쪽 퍼져있는 버스정류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먼지가 많이 나오는 데는 청소차를 많이 보내고, 먼지가 안 나오는 데는 청소차를 안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000[미래정보팀장]

- 그거에 대해서 정류장에 각 시군에 각 센서데이터를 설치해서 농도가 측정이 되면, 정류장에 저희가 150개 정도 설치하는데 그때그때마다의 미세 농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청소차의 운행경로를 최적화하겠다는 방법이 녹아있는 겁니다.

□ 부위원장 000

- 알겠습니다.

□ 000 위원

- 가천대학교 000입니다.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하고 도로의 미세먼지하고 사실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있으면 센싱(sensing)을 했을 때 사실 도로의 미세먼지하고 관계없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충돌 부분 그런 것들이 정확히 계획에 정의가 되어야 이 사업에 대한 성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대기도 기류에 따라 바람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하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도로에 대한 미세먼지의 형태하고 쌓이는 거하고 이걸 어떻게 잘 정의해서 센싱할 때는 사실 도로에다가 센서를 설치할 수 없을 거고 아마 어떤든 간에 뭔가 지상이나 이렇게 할 텐데 그걸 정확하게 센싱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000[미래정보팀장]

-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측정소 같은 경우 대부분 10m 이상 정도에 설치하게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면하고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유동할 수 있는 그쪽에 BIT 쉼터 쪽에 일단 설치해 가지고 측정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000**

- 그러니까 비교적 지면과 가까운 곳에서 가능한 한 측정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굳이 버스정류장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 **000[미래정보팀장]**

- 일단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저희 생각에는 처음에는 BIT 쉼터들이 다 있으니까 설치도 괜찮고 그래서...

□ **위원장 000**

- 점진적인 확대를 한다는 전체 하에서 우선 가장 쉬운 곳부터 시작하는 맥락으로 하시는 거죠.

□ **000[미래정보팀장]**

- 예, 그렇죠. 지금은 기본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에는 유동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정류장에 많이 모이니까 그쪽에 포커스가 된 거죠.

□ **부위원장 000**

- 되게 찬성하는 게 저 같은 경우 버스의 굉장히 많이 타는 사람이거든요. 버스 기다리면 특히 수원시에서 기다리면 엄청 먼지가 많아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차를 타는 사람보다는 버스 타는 사람이 애국자니까 애국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되게 좋은 정책 같습니다.

□ **위원장 000**

- 예, 위원님.

□ **000 위원**

-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지금 점차 확대는 하신다고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국비의 많은 지원을 받아서 시행이 되는 건데 이 미세먼지의 역량이라는

것은 상당히 다양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 중에서도 서해 쪽에 있는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목을 해서 성남시와 남양주시에 75개소를 먼저 설치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해서, 오히려 그 효과를 본다면 서해 쪽에 설치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000[미래정보팀장]

- 저희도 처음에는 양주나 포천 같은 데 밀집 공장들이 많고 그런 곳으로 포커스를 잡았지만 일단 저희가 그냥 초이스할 수 없으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지자체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의 관심도가 있고 의지가 있는 곳을 선택한 겁니다.

#### □ 000 위원

- 이 정책 자체는 굉장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청소를 하고, 특히 물청소를 하면 미세먼지에 좋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요. 아까 000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제가 볼 때 이게 전반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다 같이 많아서 청소차 5대 있다 그러면 5대가 150개 정도 이걸 다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 □ 000[미래정보팀장]

- 그거는 통상적으로 전체적인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해결하는 방법은 지구상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나쁜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높고 낮음을 알 수 있을 때 그럴 때 좀 더 효율적인 청소를 하겠다는 방안이 녹아있는 겁니다.

#### □ 000 위원

- 아니, 뭐 우스갯소리로 중국의 화력발전소나 쓰레기소각장을 동쪽으로 쪽 배치를 하면서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편서풍이 불 때 중국에서 날아오잖아요. 그때 확 켜고 만약에 동풍이 불어서 간다 이러면 자기네 쪽 안 하게 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듣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이 센서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뭔가 전반적인 대기상황 이런 것도 같이 포괄적으로 보셔야지 좀 더 좋은 분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000[미래정보팀장]

- 저희 분석에는 실질적으로 온·습도나 센서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마다의 차이가 있는 건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고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계획해서 먼저 추진을 해보고 이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면 전국 버전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효과가 미비하다면 시범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 000 위원

- 좋은 정책 같습니다.

□ 000 위원

- 대기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많은지, 아니면 도로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많은지 거기에 대한 센서가 그게 식별이 가능한가 보죠?

□ 000[미래정보팀장]

- 저희가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야죠.

□ 000 위원

- 도로재비산먼지가 많은 것을 주원인으로 밝혀지는 그런 쪽에다가 청소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000[미래정보팀장]

- 예. 그런 거 보면 저희가 분석한 자료도 있으니까 원인을 똑같은 A정거장과 B정거장의 거리가 사실 유사한데 주변에 오염물질 배출업소라든지 이쪽은 센서에 의해서 풍향·풍속이나 온도가 갑자기 높았다거나 할 때 그런 거에 의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낮음을 알 수 있다면, 어쨌든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나오면 정책방향에 입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한세대학교 000 교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센서를 부착해서 데이터 기반의 대응시스템을 만든다. 아주 좋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 좋고요. 그런데 센서만 붙여서 대응시스템이라 하지 말고 출구전략으로 대민서비스적인 차원에서 결국은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차를 타고 내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면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 소통이 있을 수 있도록 표출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as is to be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재비산먼지가 많이 감축되고 저감돼서 우리 도시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해서 더스티크리너 그런 개념의 홍보적인 측면에서 좋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세금을 쓰고 있는 도정 입장에서라도 그냥 단순하게 기능적인 차원보다는 요즘 문화이기 때문에 정책문화의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선진국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참여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추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 000[미래정보팀장]

- 물론 홍보 쪽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가 BIT 그쪽에 잡은 것도 저희가 청소하거나 이런 것을 BIT 전광판에 쏘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 잘 어울리게 만들어서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 좋습니다.

□ 000 위원

-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센서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셨으니까 그거는 생략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저감방안 자체가 청소차 운행하는 것 외에는 사실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저감방안을 다양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 제가 사는 데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를 보면 여름 같은 데 그날막 이런 거 시작해 가지고 퍼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겨울에는 이글루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가 버스를 저도 많이 타고 다닙니다마는 버스를 기다릴 때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먼지하고 이런 게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 당시에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청소차가 와서 청소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걸리고요. 이런 저감방안 쪽의 전략을 한 가지만 하지 말고 다양화해 가지고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장 000

-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센서가 설치되면 그다음에 계속 그 센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디지털 도정이랑도 연계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데이터들이 다 디지털 도정에서의 데이터로 입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현재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광고동에 미세먼지 농도’ 굉장히 포괄적인 건데 버스정류장의 센서를 설치하고 그걸 받으면 구체적인 정보들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도민서비스 입장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수집된 데이터에 의한 효과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 진짜 축적이 되면 정말 버스정류장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다음 정책으로 발전해 가는 그런 면에서 이 자체 청소차 운행이 문제가 아니고 이로 인해서 수립되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를 가지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 000 위원

- 모니터링 차원에서 아마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설치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정류장마다 워닝을 해줄 수 있는 표시가 나타날 수 있게 해서 도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000[미래정보팀장]

- 일단 저희가 관제는 기본적으로 할 건데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 000

- 예, 000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000 위원

- 지금까지 쪽 말씀 들어본 거 보면 집에 만약 먼지가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발생하는 먼지를 청소하겠다는 하는 얘기는 지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먼지가 왜 생기느냐. 그 원인이 일단 계속 있으면 이건 아무리 청소를 해도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원인분석을 하시겠다는 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분석을 하셨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그냥 단순히 원인분석만 하시고 말 건지...

□ 000(미래정보팀장)

- 일단 데이터가 있고 원인분석이 된다면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저희가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까지 원소를 넣은 이유는 그것이 법에 미세먼지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농도가 왜 이 정류장에서 높은지 그런 것도 원인이 나오면 이로 인해서 진짜로 미세먼지 농도도 같이 높아지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여기 도로재비산먼지가 14.8%가 나온다 이것도 지금 이미 어딘가 통계가 나와서 이렇게...

□ 000(미래정보팀장)

- 예, 저희 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렇다 그러면 도로재에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인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도로재를 바꾼다든지 뭐 어떤 그런 원인에 대한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여쭙봤습니다.

□ 위원장 000

- 이건 이 사업 범위는 아닌 것 같은데 다만 부서 간에 업무협조라고 하는 게 그다음 단계에서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도정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운영팀장님께서 세 번째 사업인 신청사 이전 관련 통합전산센터 구축 및 망분리 추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000[통신운영팀장]

- 안녕하십니까. 통신운영팀장 000입니다. 17페이지 신청사 이전 관련 통합전산센터 구축 및 망분리 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청사 이전시기에 맞춰서 분산 운영 중인 정보화자원의 통합·공동 활용을 위해 통합전산센터의 IT인프라 설계와 정보자원 이중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ISP 용역사업과 보안성 강화와 업무효율을 고려한 망분리 정책 수립을 위한 컨설팅 사업으로 각각 4억 원과 1억5,000만 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통합전산센터 구축을 위한 ISP 용역의 주요 사업내용은 분산된 정보자원 통합 운영을 위한 IT인프라 설계, 정보자원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전계획 수립, 정보자원 효율화 및 통합전산센터 발전방향 수립 등이며, 망분리 컨설팅의 주요 사업내용은 업무망, 인터넷망, 음성망 등에 대한 효율적인 망분리 정책 수립과 소요예산 도출, 본청과 도의회의 네트워크 통합 관리를 위한 망설계, 신청사와 통합전산센터 간 네트워크 설계 및 운영 유지관리방안 수립 등이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 본 사업은 현재 발주 전으로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정보화사업들이 서로 연관된 부분이 많아 실무협의회 등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사전에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 통합전산센터 구축 및 망분리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위원장 000

- 통신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청사 이전 관련 통합전산센터 구축 및 망분리 추진에 관련해서 자문해 주실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 부위원장 000

- 자문이 아니고요. 망분리를 논리적으로 합니까, 물리적으로 합니까?

□ 000[통신운영팀장]

- 논리적인 망분리하고 물리적 망분리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도 있지만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아직 정확히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000

- 논리적으로 하면 돈이 적게 들 거고 물리적으로 하면 돈은 많이 들지만 국가 정보원이 좋아할 거고 그게 지금 고민되시는 거 아니에요?

□ 000[통신운영팀장]

- 일단 예산을 보면 중앙부처를 상대하면 논리적인 부분과 물리적인 망분리 예산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망분리 같은 경우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논리적인 망분리는 협소한 공간에서 유리한 장점이 있는데요. 저희 청사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라서 아마 다각도로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000

- 가능하면 논리적 망분리를 생각해 보시고 그래야지 향후 경비라든가 절감 효과도 있을뿐더러 물리적 망분리는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물리적 망분리로 계속 왔는데 너무 돈도 많이 들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 000[통신운영팀장]

-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000

- 다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 000 위원

- 우리가 통합전산센터를 갖다가 설계하고 이전하는데 설계는 계속 앞으로 ISP

단계에서 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될 점이 이전 쪽입니다. 이 데이터의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쪽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전하려면 업무중단시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디지털 리커버리라든가 이런 쪽을 해봤는데 업무중단시기는 어느 정도로 리드타임을 가지고 가서 그쪽에다 새로 구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하면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분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단계별로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이전할 것인지도 사전에 잘 맞춰서 ISP를 잘 고려해야지만 업무중단 없이 잘 이전될 것 같습니다.

□ 000[통신운영팀장]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000

- 지금 제안하신 거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으신 건 아닐 것 같은데요.

□ 000[통신운영팀장]

- 일단 저희가 신청사 이전이 2021년도 상반기에 예정이 되는데요. 그때와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현재 건설본부라고 금곡동에 소재해 있는데요. 저희가 자세하게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청사 이전 전에 건설본부가 이전을 하면 거기에 가서 미리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000

- 아직은 데이터 이전을 어떤 단계로 갈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우신 상태인 거예요?

□ 000[통신운영팀장]

-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000

○ 예, 컨설팅을 받으실 거니까.

○ 굉장히 추상적인 단계에 있으셔서 뭔가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큰 굵은 그림만 갖고 오시니까 제언이라든지 의견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 □ 000 위원

○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물리적 망분리하고 논리적 망분리 관련해서 혹시 물리적 망분리의 실패사례라든지 비교한 사례 이런 게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000

○ 지금 혹시 한 가지 사례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 부위원장 000

○ 망분리는 물리적 망분리로 하나 논리적 망분리로 하나 실패라는 건 없죠, 똑같이 분리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망분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장비의 이중화라든가 예산중복에 들어가고 또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 값이 많이 들어가요. 전기 값 들어가서 결국 운영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물리적 망분리는 이제는 지양할 때가 됐다고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나 모든 공공기관들이 물리적 망분리로 가는 이유는 딱 하나, 세곡동 사람들이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귀찮고 그래서 그런 거지만 점점 분위기를 만들어서, 지금 논리적 망분리로 가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경기도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도 아마 이 논쟁을 한번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SBC로 가냐 어디로 가냐 논쟁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신청사 이전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최초로 확실히 논리적 망분리로 간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모든 다른 기관들한테 모범적이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드웨어하는 외국 업체만 돈 벌어주는 게 물리적 망분리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답답한 면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국정원하고 특정 부서만은 제외하지만 제가 논리는 항상 많이 만드니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000

- 마음은 도와드리고 싶은데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주제에 관련된 것은 이상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데이터분석팀장님께서 네 번째 사업인 데이터분석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000[데이터분석팀장]

-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분석팀장 000입니다. 자료 19쪽 데이터분석 플랫폼 구축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기반을 구축하여 과학적 행정과 도민생활 만족도를 높이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7월 시작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6개월, 사업비 8억 원을 제1회 추경 요구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분석 결과 공유를 위한 포털 구축, 공공·민간 데이터의 통합저장소 마련, 지도기반 분석 서비스를 구축하여 도와 시군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를 분석하여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0쪽 시스템 구성입니다. 지역상권, 매출정보, 유동인구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 정제, 분석하여 사용자는 물론 기관, 연구소, 소상공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까지 관광, CCTV, 가뭄대책 등 24개 과제 30회를 분석하였고 금년에는 민선7기 도정 핵심사업인 지역화폐 정책효과 분석으로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도민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주요 이슈 등 시의성 있는 분석과 분석 결과 공유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확정되면 세부 추진계획을 수

립하여 데이터 분석 활용 플랫폼을 차질 없이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000

- 데이터분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분석 플랫폼 구축 사업에 관해서 자문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방향성이라든지 꼭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드리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것들을 지적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000

- 잘 몰라서 질문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결국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목적 자체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레퍼런스(reference)를 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지 데이터 분석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 000[데이터분석팀장]

- 예, 맞습니다.

□ 부위원장 000

- 여기 보면 데이터 플랫폼인데 주로 어떤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플랫폼이 정책의 종류에 따라서 바뀌는 건지 아니면 고정적인 건지 그걸 질문드리고 싶어서요.

□ 000[데이터분석팀장]

- 데이터분석 과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부위원장 000

- 예, 플랫폼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까?

□ 000[데이터분석팀장]



- 지금 저희는 기존에는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 CCTV 우선 설치 및 운영관리, 가뭄예측, 농경지 필지별 가뭄예측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민선7기 도정 핵심사업 지역화폐가 시작되면서 정책효과 분석을 첫 번째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역 화폐 도입 후 이것이 과연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카드사의 매출정보와 통신사의 유동인구가 있고요. 국민연금공단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600억 건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것과 함께 분석해서 정책을 방향을 할 수 있도록 도출해서 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물론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서 개선사항에 대한 문제점도 발굴해서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 부위원장 000**

- 감사합니다.

**□ 000 위원**

- 지난 기존에 관광이나 CCTV, 가뭄예측 같은 것들은 분석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 000[데이터분석팀장]**

- 저희들이 용역으로 분석을 해서 분석 결과 서비스만 지금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플랫폼은 없었구요?

**□ 000[데이터분석팀장]**

- 예.

**□ 000 위원**

-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플랫폼을 만든다는 거죠?

**□ 000[데이터분석팀장]**

○ 그렇죠.

□ 000 위원

○ 그런 것들 포함해서 기존에 관광이나 CCTV, 가뭄예측 포함해서 지역화폐라든지 취·실업, 유동인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올해는 새롭게 플랫폼을 경기도 자체로 만든다는 건가요?

□ 000[데이터분석팀장]

○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온 지금 타겟이 뭔지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게더링(gathering)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분석을 하려면 아무런 데이터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 인풋 자체가 정확하고 거기에 관계된 데이터가 모아져야 그걸 가지고 분석이 되는 건데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전략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추진상황을 보면 가장 분석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역화폐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권 활성화는 유동인구도 중요하고 지역상권에 대한 매출정보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지역화폐라고 특별하게 이름을 붙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이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출정보라든가 유동인구에 대한 분석은 지금 통신사 아이콘을 그려 놓으셔서 통신사로 분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유동인구는 버스 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카드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유동인구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신사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방향도 한번 저희가 고민해서 정확한 유동인구에 대한 예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매출정보라든가 이런 지역상권의 활성화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동인구에 대한 분석이라고 제가 느낌이 오는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통신사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는 미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000[데이터분석팀장]

- 저희가 계속 분석한 것은 관광이나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모델 개발을 해서 대동소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를 첫 번째 타겟으로 잡은 것은 경기도 특화된 것으로써 저희 경기도의 28개 시군이 카드형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화폐를 우선으로 삼았고요. 그 이후에 도정에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해서 계속 지역화폐 데이터, 다른 데이터를 블록식으로 끼워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통합저장소에 말씀하신 모든 데이터가 많이 저장되고 쌓이다 보면 그게 디지털 도정을 구현하는 첫걸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 000 위원

- 지역화폐가 많이 활성화돼서 성과가 괜찮은가요?

□ 000[데이터분석팀장]

- 아니요, 지금 4월에 카드 처음 발행이라 4월 22일부터 정책수당이 되고 아직 발행은 안 됐습니다.

□ 000 위원

-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카드를 쓸 때는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어야지 그 카드를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화폐로 발행되는 카드를 쓰려면, 예를 들어서 각 지역마다 그거에 대한 메리트라든가 인센티브를 뭔가 제시해야지만 이게 활성화되고 그거를 사용하면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카드만 도입한다고 해 가지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걸 쓸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만약에 지역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고려하신다면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000[데이터분석팀장]1

- 지금은 정책수당으로 청년배당이라든지 아동수당, 산후조리원비 이렇게 목적수당이 정책수당으로 지급을 하니까 활용되게끔...

□ 000 위원

○ 쓸 수밖에 없게.

□ 000[데이터분석팀장]

○ 그렇습니다.

□ 위원장 000

○ 예, 000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000 위원

○ 이 데이터의 가치라는 게 사실 만들어질 때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 데이터가 어떻게 가공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발하게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경기도에서 다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에서 이것을 한다면 오히려 서비스를 개발하고 가공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창업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제공해 준다면 이 데이터의 가치가 무궁무진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아마 공공 API를 아마도 제공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잘해서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생각지도 못한 데이터 가공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런 것을 잘되게 도와주는 그런 정책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000[데이터분석팀장]

○ 예, 지금 플랫폼을 구축해서 분석환경기관으로, 기관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상공인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플랫폼 구축이 되겠습니다.

□ 000 위원

○ 지금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 중이신데 우리가 1안에서 논의를 했죠, 디지털 경기도정이에요. 그러면 올해 ISP가 끝나면 내년도에 이 분석 플랫폼을 또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고 계시는데 넥스트에 우리 디지털 경기도정이 되면서 발생하는 그런 분석 플랫폼하고 연계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000[데이터분석팀장]

- 디지털 경기도정이 첫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거라고 보시면. 이걸 가지고 이 데이터 분석 결과를 상황판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 또 연구나 상공인들이 개발하는 정책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면 말씀하신 중소기업이나 용역을 해서 분석 모델도 개발하고 고도화도 시킬 수 있는 그렇게 다 유기적인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이게 시초 시스템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 건가요? 내년도 들어가면 고도화 시스템이 또 나오고?

□ 000[데이터분석팀장]

- 예.

□ 000 위원

- 하여튼 제가 보기에 그 연계 시스템이 처음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 000[데이터분석팀장]

- 예.

□ 위원장 000

-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보이는 거고요. 밑에 데이터통합저장소라고 했는데 공공·민간 데이터의 통합저장소면 그 저장소 안에 앞으로 디지털 도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이 다 그쪽으로 모일 것이라는 것은 앞으로 정책연구를 해봐야 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겠네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건 지역화폐, 그러니까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구체화된 서비스의 한 예로, 지역화폐 분석을 하나 예로 개발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군요.

□ 000[데이터분석팀장]

- 예, 맞습니다. 지역화폐처럼 그런 예가 여러 가지로 블록으로 끼워 나갈 겁니다.

□ 위원장 000

- 요새 데이터분석 관련된 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에서도 어떤 툴을 제공하시는 건가요?

□ 000[데이터분석팀장]

- 저희들이 이번에 다 소프트웨어도 구입해서 여기에 담습니다.

□ 위원장 000

- 개발 툴도...

□ 000[데이터분석팀장]

- 예, 개발 툴도 담고 시각화할 수 있는 태블로라든지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번에 개발비보다 소프트웨어 구입비, 하드웨어 구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000

- 그럼 소프트웨어는 한번 패키지로 사서 계속 라이선싱을 업그레이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000[데이터분석팀장]

- 해마다 라이선스비는 저희들이 수용비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 위원장 000

- 저희 학교에서도 보면 시뮬레이션 하는 툴 하나도 연간 라이선스가 억대를 넘어가거든요. 여기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성능 좋고 유용한 툴을 도입하신다고 치면 아마 예산이 제법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걸 도에서 개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위험한 툴을 도입하신다고 치면 예산이 제법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걸 도에서 개발할 수 없는 거고요.

□ 000[데이터분석팀장]

- 그렇죠. 방법이 없습니다.

□ 부위원장 000

○ 개발비보다는 적게 드니까.

□ **위원장 000**

○ 예, 그렇죠.

□ **000 위원**

○ 한세대학교 000 교수입니다. 먼저 GIS기반의 레이어 형태로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GIS는 현재 **아크\*\*(76:24)** 뭘 쓰고 있죠?

□ **000[데이터분석팀장]**

○ 저희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도 자체에 없어서 도입할 계획입니다.

□ **000 위원**

○ 라이선스를 다른 쪽에서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 구입을,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른 쪽에서 지금 GIS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 **000[데이터분석팀장]**

○ 이게 시스템별로 들어가서 도에서 여러 군데에서 쓰고 있어도...

□ **000 위원**

○ 두 번째는 저작도구를 오픈할 건지 아니면 그 자체에서만 저작도구를 할 것인지. 요즘은 다 인터랙티브(interactive)하게 오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플랫폼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오픈시스템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민간하고 공공의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상권분석이나 버퍼링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본인이 프로슈머(prosumer), 컨슈머(consumer)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참여형 플랫폼의 형태로 방향성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거에 대해 동의하는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 **000[데이터분석팀장]**

○ 참 고민이죠, 어디까지 개방하고 어디까지 폐쇄해야 되는지. 사실 저희들이 분석 결과 서비스도 내부적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포털로 대민서비

스를 가지고 갈 생각이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석에도 어떠한 기준을 뒤서 폐쇄로 운영할, 항상 데이터 수급할 때 데이터 분석하면 구입비가 이거 자체 분석비로만 쓰면 얼마, 어디까지 오픈하면 얼마,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 때문에 제약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저희 도에서 구입한 통신사 데이터나 카드사 매출정보를 31개 시군에서 같이 공용으로 활용하자고 하는 의견이 항상 많아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터무니없이 가격이 높이 책정돼서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구입해 오는 것은 현재까지는 경기도 분석과제 수행용으로만 계속 구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범위는 돈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해서 적절한 수준을 찾아가려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 000 위원

- 권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맞습니다. 궁극적인 방향은 결국은 데이터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그게 데이터 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실질적으로 수혜자인 도민들한테 기회를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쪽이,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이 다들 아시겠지만 초창기이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사람들의 과도한 기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생성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면책범위 같은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서 국민들한테 많이 주자고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공공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개방했을 때 생기는 파급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갑자기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활용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은 기껏해야 어디 놀러갈 공간들, 그다음에 주차공간들, CCTV 위치정보 이런 정도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큰 산업이나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쪽에서 이 데이터의 신뢰성을 믿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큰 방향은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사회적인 데이터의 준거점들을 찾을 때까지 신뢰 수준이나 이런 것에 대한 컨센선스(consensus)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차근차근, 아무래도 공공은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뚫아 나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000 위원

-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이해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향점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

- 예.

□ 위원장 000

- 그러면 여기 아까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입을 하신 거면 이게 일반인들한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게 됐을 때 그때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유통사나 카드사나 이쪽의 데이터 사용요금에 대해서 지불해야 될 금액이 달라지나요?

□ 000[데이터분석팀장]

- 이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구축이 되면 한 12월 정도에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거기까지도 수궁하게 하고. 지금 아직 계류 중인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가 된다면 사실 저희들이 국세청이나 의료정보 같이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많이 가져다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게 제도화되고, 조금 더 내년에는 거기까지 포함되는 예산을 수반해서 할 생각입니다. 계획입니다.

□ 000 위원

- 질문이 있는데, 이 데이터가 하나의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이 존재할 거라고요. 그럼 그거를 융합할 수 있는 같이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인가요, 지금 여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소프트웨어를 사 오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 000[데이터분석팀장]

- 지금까지 저희는 계속 용역에 의해서 분석을 한 결과만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석만 하다 보니 저희가 분석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말씀하신 대로 구입했던 거, 15년부터 지금 19년까지 구입하고 또 다른 곳에서 수집한 데이터

를 한곳에 모아놓는 곳이 없었습니다. 모아놓는 그릇을 만드는 거고요. 그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는 포털도 구축을 해서 지금은 내부 망에 도와 시군 직원들만 공유해서 보고 있지만 관광 정도는 일반인 대민서비스를 하면 여기 경기도에 오늘의 가장 많이 간 10군데를 찾아간다든지, 맛집을 찾아간다든지 엮이지 않고 신뢰적으로 가는 그런 내용으로 포털을 구축하고자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 000 위원

○ 그렇게 하려면 지금 여기 GIS기반 이것도 나와 있잖아요.

□ 000[데이터분석팀장]

○ 분석 결과라고 지도기반으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AR을 하겠다는 건지, 분위기상으로는. 제가 약간 그런 인상을 받아서.

□ 위원장 000

○ 가시화 서비스의 범위가 어느 정도 거창한 거일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건데, 그냥 화면에 그래프 정도 그리고 말 건지...

□ 000 위원

○ 아, 그 위치에 그래프만 그려주는 거예요?

□ 000[데이터분석팀장]

○ 아니, 현재 서비스 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000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라이선스비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데이터를 구매하는 비용도 굉장히 비싼데 그러면 공공서비스가 얼마큼의 비용을 책임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데이터를 일반인들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은 무료로 할 수 있다고 치지만 뭔가 그거를 가지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에도 무료 서비스를 할

건가. 혹은 어느 정도부터는 과금,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페이를 하게 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왜냐하면 저야 되는 비용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 000[데이터분석팀장]

-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못하죠. 해도 정말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연구용까지죠. 학교 내지는 경시대회 정도. 서울빅데이터캠퍼스에서 하는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은.

□ 위원장 000

- 여기 보면 상공인이나 일반사용자라고 들어왔지만 그 일반사용자가 결국 그걸 통해서...

□ 000[데이터분석팀장]

- 제한적으로.

□ 위원장 000

- 다른 사업을 하는데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추적 불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 사람이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해서 이익을 창출했다. 그런데 그걸 추적하기가 어려운 거죠?

□ 000[데이터분석팀장]

- 지금 저희가 상권분석 같은 경우 서비스를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시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다는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요. 저희들이 상권분석해서 올려놓은 게 있으면 ‘내 지역에 어디 상권을 할 거야, 관광지 어디를 갈 거야’ 분석 결과 서비스에 대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도 기반으로도 보고 내용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 위원장 000

- 아니, 제 말씀은 뭔가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에 분석도 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인 거 아닌가요?

□ 000[데이터분석팀장]

- 분석은 제한적으로, 연구용 학생이나 아까 말씀드린 영세중소기업 거기까지지 일반 공개인들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영리목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까지 범위를 풀 수는 없는 게 데이터...

□ 위원장 000

- 철저히 무료 서비스인 거네요, 현재는 도가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 000[데이터분석팀장]

- 예.

□ 000 위원

- 어쨌든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무료 서비스가 됐든 유료 서비스가 됐든 연구용이 됐든 간에 신뢰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구 같은 데이터들이 잘못돼서 정책에 반영되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축적할 것인가에 대한 참 많은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하든 유료화를 하든 무료화를 하든 될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 신뢰성 있는 데이터 게더링 방법하고 또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만약에 이게 들어가거나 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풀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책서비스든 민간서비스든 간에 어떤 범위까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결정된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합 구축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000

- 그러면 데이터 키퍼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데이터가 믿을 만한 데이터인지 신뢰 있는 데이터인지 키핑할 수 있는, 모니터링해 가지고 이벨루션(evaluation)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이런 인력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예산 배정하실 때 인력채용이나 인력활용에 대한 계획도 포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000[데이터분석팀장]

- 감사합니다.

□ 000 위원

- 저 하나만 더 추가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얘기하셨는데요. 특히 아마존 같은 데서 개인정보를 사실상 수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 파악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래서 뭔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서비스 제공을 해요.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은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관리하지 않으면, 혹시 그 데이터를 만약에 대민서비스로 나갔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 000[데이터분석팀장]

- 저희 지금 현재 국민연금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다가 쓰고 있는데요. 취업정보라든지 볼 때. 특히 어떤 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반경에 5개 이내라면 그거를 도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뻔히 저쪽에 한 개밖에 없는 기업체에 월급이 얼마고 이직상태가 어떻다면 그 업체를 표시하지 않아도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제해서 주는 입장에서 다 그거를 걸러서 주고 있습니다, 현재 법제도 하에서.

□ 위원장 000

- 지역의 평균급여 이런 것들을 할 때 딱 집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공개 안 한다 이런...

□ 000[데이터분석팀장]

- 없습니다.

□ 위원장 000

- 프라이버시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네요.

□ 000[데이터분석팀장]

-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잘 아시는 몇 년 전에 카드사나 은행사에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각자 데이터를 판매나 제공하는 입장에서 부터 잘 정제돼서 오고 있습니다.

#### □ 위원장 000

- 혹시 더 자문하시거나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 □ 000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이 플랫폼에 대한 가장 최종적인 문제점은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의 활용 이런 것들은 미리 고민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앤드유저(end user)가 이 모델링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정확한 어떤 모델 제시를 해주느냐가 지금 문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용자가 일반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소상공인이 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모델링이 잘못됐을 때는 상당히 엉뚱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올 수 있는 문제점들이 오히려 저는 더 큰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담당관님 얘기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검증 단계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앤드유저한테 제공하기 전에. 그래서 일단 모델링에 대한 정확성이 검증된 다음에 일반사용자가 됐든 아니면 소상공인이 됐든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태까지 했던 관광 정보라든가 CCTV 같은 경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처럼 우리가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모델링에 대한 검증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레퍼런스 모델로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 □ 000(데이터분석팀장)

- 감사합니다.

#### □ 위원장 000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오늘 심의하고 자문해야 될 4건의 안건을 모두 다 마쳤고요. 이렇게

열심히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답변하느라 고생하신 팀장님들도 감사합니다. 아무튼 경기도에서는 역점사업 4건을 결정하셨고 추진하시는 건데 오늘 드린 의견들을 잘 반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경기도 정보화 주요사업 추진방안 자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그럼 이상으로 2019년 제1차 경기도 정보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폐회 17:30 】

===== 끝 =====